

무절제한 차량출입으로 방역체계 무너지고 있다.

□ 취재/김동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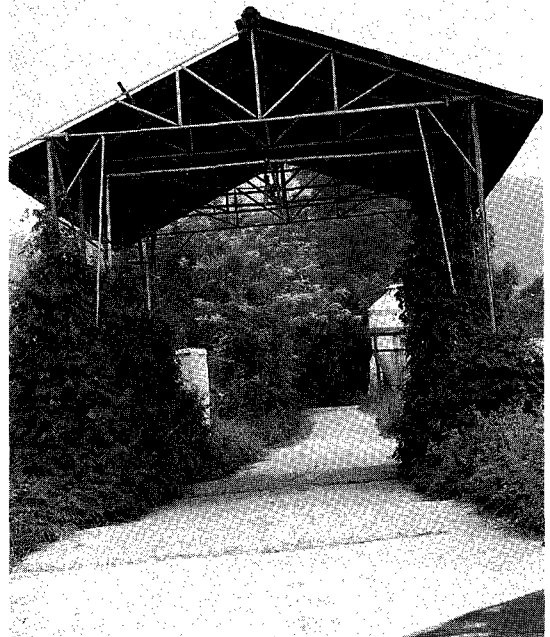
금년 여름은 유난히 장마가 길어 난가가 고가행진을 계속하였다. 각 농장에는 상인들이 계란이 없어 한 개의 계란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하는가 하면, 생산자들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적자를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게 최근의 실상이다. 금년 여름 이후 불황의 골이 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난가가 고가행진을 계속한 것은 채란업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이 농가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면서 생산량 감소를 가져온데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울여름 가금티푸스가 양계단지 등 큰 농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금티푸스가 여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확실한 퇴치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백신제제의 개발도 아직 미흡하다는데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채란업계 전반적으로 방역체계에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 농장에서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하여도 종계 자체에서 난계대 질병으로 유입되는 질병들과 외부인(차량)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질병을 모두 차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 외부차량들에



△ 차량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관리가 안돼 차량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농장입구 차량소독 실태

차량은 농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전파의 주요인으로 농장을 출입하는 각종 차량들이 위험요소로 부각되면서 대형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위해 농장입구에 차량소독기를 설치한 농가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는 차량소독기를 설치하지 않은 농장이 대부분이며 차량소독기를 설치한 농장에서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정작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장들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5만수 이상을 관리하는 농장이나 양계단지 등 대규모 농장에는 차량소독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반면 소규모의 농장에는 거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병예방에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농장의 출입차량 방역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의 한 집단농장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농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올 경우 이웃 농장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방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장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입구에는 차량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큰 제한 없이 농장입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차량소독기 자체는 녹이 슬어 있고 소독기 주변에는 덩쿨식물이 뒤덮여 있었으며 어떤 차량도 제제를 당하지 않고 지나들었다. 16가구가 모여 있는 이 농장의 경우 지난 '96년 가금티푸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시점에서 각 농장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아 차량소독기를 설치하고 한동안은 철저히 차량소독을 실시하였지만 2

년이 지난 현재 차량소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면서 본래의 취지를 뒤로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농장내에 들어가자 닭이송차량, 계란차량, 각종 자가용들이 농장 요소요소에 정차해 있거나 운행되어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아직도 농장관리인들은 계사 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계사내부를 자주 소독해주며 방문객들의 계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을 방역의 중요한 사항으로 두고 있으면서 계사외부를 지나 다니는

농장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은 크리닝된 깨끗한
초생추를 기르는 길입니다.



Hy-Line.

Hy-Line Layers

한 양 부 화 장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0336-642-구구팔구

차량에 대해서는 정작 중요성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도의 H농장의 경우 외부차량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은 물론 차량소독기 자체도 관리가 잘되고 있어 대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차량통제를 엄격하게 하고있는 H농장의 경우도 자동으로 소독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보니 고장이 발생할 경우 차량통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조금이라도 농장 관리에 소홀할 경우 외부차량에 의한 질병전파의 위험성은 언제나 농장결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3만수 규모농장 하루에 평균 6대의 차량이 출입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사료, 계란, 계분, 약품, 노계, 중추, 기타(농장차량, 방문차량 등) 차량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질병으로부터 안심할 차량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하루에 몇대의 차량이 농장을 출입하는 것일까?

3만수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의 J농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계란차량은 하루에 한 대, 계분차량은 한달에 다섯대, 사료차량은 5톤 기준 한달에 25대, 약품차량은 한달에 15대, 노계 중추차량 3,000수씩 한번에 10대, 노계차량은 2,000수씩 한 번에 15대, 기타 차량(농가보유차량

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차량 등)은 하루에 4번 정도 농장을 드나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를 계산할 경우 1년에 2,390대의 차량이 이 농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를 놓고 볼 때 평균 6.5대 꼴로 출입차량에 의해 농장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출입하는 차량은 기타 차량(농장주인 차량, 직원 차량, 사료, 약품 등 영업용 차량 등)이 출입차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 농장 출입구에 차량소독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실제 운송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은 40%에 해당했다.

이들 수송차량중에는 계란차량, 사료차량, 약품차량, 계분차량 순으로 출입빈도가 파악되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농장은 규모가 작은 농장보다 차량출입이 빈번하기 마련이므로 질병 예방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의한 질병감염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은

과연 차량소독을 하고 농장에 들어오는 것일까? 비교적 차량소독을 잘하고 있는 사료차량을 예를 들어 보면 사료회사 차량, 대리점 차량, 농장 차량, 용차 등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장차량은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이중 가장 많이 활동을 하면서도 방역에 취약한 것이 일명 '짚차'로 불리워지는 용차이다. 하지만 사료를 운송하기 위해서 모든 차량들은 사료공장에 들러 사료를 이송하기 때문에 사료공장에 차량소독기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소독을 하여 내보낼 수 있으며 실제로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소독실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공장들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키는 공장들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료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이 갖추어진 공장이라 하더라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농장으로 출발하는 차량도 의외로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 농장 주변에는 계란차를 비롯해 각종 차량들이 빈번히 드나들고 있어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하루에도 수 많은 차량들이 공장을 들르는데 일일이 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료차량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후 타농장으로 이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계분차량은 계분이 바뀌에 물었을 경우 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소독약을 듬뿍 뿌려준

안전경영에 필요한 좋은 병아리란?

1. 면역 항체가가 높고, 균일한 병아리, 특히 감보로 항체가가 높은 병아리
2. 살모넬라 G(기금티푸스), 살모넬라 P(추백리), 살모넬라 E, 마이코플라스마 G 청정 병아리
3. 1주간의 폐사율 0.5% 미만의 병아리



Hy-Line.

Hy-Line 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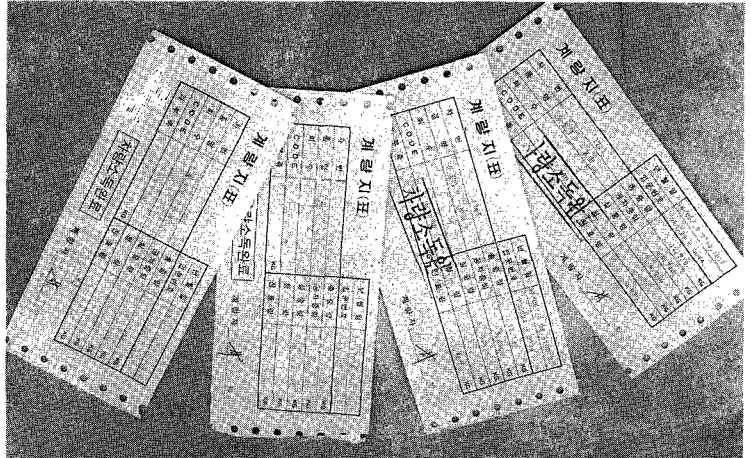
한 양 부 화 장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0336-642-구구팔구

3. 방역 대책

정부는 올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도축장, 축산단지 등에 출입하는 가축, 사료, 약품, 분뇨 등의 수송차량에 대해 소독실시 요령을 고시한 바 있으며 이 고시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가축수송차량은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도계장, 사료공장이나 정부지원자금을 받아 조성되어진 축산단지에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되고 작업장 경영자는 차량운전자에게 반드시 소독실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농장에서도 출입차량에 대해 차량소독 실시 증명서를 요구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농장내 진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질병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으나 허위로 소독실시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루에도 수 없이



△ 일부 사료회사에서 소독후 발급해 주는 "차량 소독실시 완료" 증명서-질병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에서는 앞으로 이를 확인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많은 차량이 드나드는 작업장에서 만약 자동으로 작동되는 차량소독기가 고장날 경우 영업에 차질을 가져오면서까지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작업장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농장을 지키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채란농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은 채란농장과 관계된 차들이 대부분이고 차량 한 대가 여러 농장들을 하루에도 몇번씩 드나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료차를 비롯해 일부 차량들은 회사 자체내에서 소독을 하고 농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량의 차량들이 방역의 개념없이 농장에 들어오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장에 출입하는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차량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되며 여건이 맞지 않으면 수동 소독기라도 설치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차량소독기의 단점은 자동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수동의 경우 소독을 위해 한사람이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농장을 지키고 계획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의 개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양계**